



07-43 (통권 170호)  
2007.10.26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소비량, 견조한 증가세
- 가계신용대출 급증 추세

## 경영 노트

- 글로벌 기업의 인재 육성

## 사회 트렌드

- 살림하는 남편, 주부(主夫) 시대
- 프루브族

## 저널 브리프

- 중국 제17차 전국대표회의의 특징

## 洗心錄

-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라

## □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소비량, 견조한 증가세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원유소비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소비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어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일평균 원유소비량은 2,500만 배럴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 평균 증가율인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률로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소비량은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최근의 달러화 약세는 이들 국가의 실질적인 원유도입 단가를 하락시켜 원유소비량 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음

## □ 가계신용대출 급증 추세

-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의하면 8월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460.9조 원으로서 월중 5.0조 원이 늘어나 전월(2.9조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은 0.5조 원 증가에 그친 반면 주택관련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2.9조 원에 달하여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계의 신용대출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도 105.0조 원으로 월중 1.6조 원 증가하여 전월의 1.2조 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커짐
  
- 가계신용대출의 급증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기업의 인재 육성

- (개요) 글로벌 기업의 인재육성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기업은 제품과 제품브랜드는 강하지만, 인재확보와 인재육성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
  - 국내 기업은 제품에 브랜드를 붙여 판매해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인재에 브랜드를 붙이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함 (버비이엔 BT 회장)
  - 어느 사업이건 인재가 차별화의 기본요소이며 앞으로의 기업경쟁력은 누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음
- (글로벌 기업의 인재육성) BT, BMW, 창이공항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이면에는 인재개발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방법이 있음
  - 전 세계 10만 6,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BMW가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이유는 BMW만의 철저한 인재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임
  - 창이 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데는 싱가포르가 가진 교육인프라와 함께 창이공항 고유의 인재양성 정책의 결과임

<글로벌 기업의 인재육성>

회사명	인재육성 철학/방법
BT	·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 ·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음
BMW	· BMW 유전자라고 불리는 7가지 가치관 정립을 강조 (정체성, 신뢰성, 성과, 열정, 자유, 팀워크, 위험감수)
창이공항	· 개별 직원들의 관심과 회사가 요구하는 자질의 결합을 최우선함 ·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직무경험을 공유함
콜드만삭스	· 인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원들끼리 정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흐름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

자료: 한국경제, 2007.10.15

-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은 사업영역에 관계없이 제품보다 인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품중심에서 인재중심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함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기술은 어디서든 제공할 수 있지만, 인재들은 어느 시장에서 어느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핵심 중의 핵심 자산임

## □ 살림하는 남편, 주부(主夫) 시대

-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살이를 떠맡는 ‘전업 주부형’ 남편이 최근 3년새 43%가량 증가해 15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는 아내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활동을 하는 남성은 15만 1,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3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해 42.5% 증가한 것임
  - 한편 지난해 육아가사활동을 하는 여성은 662만 2,000명으로 2003년과 비교해 1.1% 증가하는 데 그침

## □ 프루브 族

- 최근 들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희귀 브랜드를 선호하는 ‘프루브 族’이 패션계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 프루브족이란 ‘희소가치를 자랑스럽게 실현하는 사람들’(PRUV, Proud Realisers of Unusual Value)을 가리키는 신조어
  - 예를 들면 아푸와이저 리세, 트루릴리전, 라흐두뜨 등과 같은 낯선 브랜드가 그 예임
- 프루브족은 남이 모르는 브랜드나 쉽게 구하기 힘든 브랜드로 남들과 자신을 차별화함으로써 큰 만족감을 얻는 소비자들임
  - ‘희소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신홍 명품족인 ‘노노스족’(No Logo No Design)과 비슷하지만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는 노노스족과 달리 프루브족은 평범한 가격대의 희귀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점이 다름
  - 즉 노노스족이 패션 상류층이라면, 프루브족은 새롭게 부상한 패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 프루브족이 생겨난 결정적인 계기는 해외여행의 증가와 구매 대행 패션몰의 등장임
  - 일본 브랜드를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도쿄홀릭’, 미국 유행 브랜드를 판매하는 ‘위즈워드’, 프랑스 브랜드 판매 대행몰 ‘라흐두뜨’, 이탈리아 등 유럽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엔조이밀란’ 등이 대표적임

□ 중국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특징\*

- (개요)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내용이 중국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메시지로서 주목받고 있음
- (주요 내용)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요 메시지는 분배 중시, 1인당 GDP의 확대,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가속, 중국 인민들의 재산성(財産性) 수입의 확대, 생태문명의 건설 등임
  - 분배 중시 : 지금까지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빈부격차의 확대 등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향후에는 임금 인상 등 공평성을 중시하는 재분배 또한 강조
  - 1인당 GDP의 확대 :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는 2020년의 1인당 GDP가 2000년의 4배가 되게 한다는 1인당 GDP 목표치를 처음으로 제시
  -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가속 : 이번 대회에서는 빠른 성장보다는 수출과 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내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즉, 좋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우호우쾌’(又好又快) 전략으로 변화
  - 중국 인민들의 재산성 수입 확대 : 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 부동산을 포함하여 일반 서민들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키로 함
  - 생태문명의 건설 : 에너지 절약형, 생태 환경 보호형 산업구조·성장 방식·소비 구조의 형성 또한 향후 주요 정책 목표임
- (시사점)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는 중국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국 인민들의 재산성 수입 확대 등은 증시 등 자본시장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Business』(2007.10.2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라\*

“철새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거의 질식할 수준이다. 해야 할 일도 자꾸 쌓여만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간 관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높은 업적의 달성과 유지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한 열쇠이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전 올림픽 코치였던 짐 로어(Jim Loehr)의 ‘인간 에너지론’이다.

개인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아닌 에너지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루의 가용시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양과 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전력 투입할 줄 아는 힘이 중요한 것이다.

시간관리 패러다임(구)	에너지관리 패러다임(신)
시간을 관리한다	에너지를 관리한다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피한다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의 연속이다
휴식은 낭비하는 시간이다	휴식은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이다
보수가 실적 달성/향상에 동기부여가 된다	목적이 실적 달성/향상에 동기부여가 된다
자기규율로 자신을 지배한다	독특한 의식(ritual)으로 자신을 지배한다
긍정적 사고법(Positive thinking)의 힘	전력 투입(Full engagement)의 힘

그는 멀티태스킹은 비생산적이라고 단언한다. 가능한 한 주요 목표와 업무를 엄선하여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하루 중 정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한 시간 정도이므로 그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로어는 “리더란 그 자신이 비범한 영웅이나 카리스마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평범한 부하 직원에게 비범한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하 직원의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 인간은 그가 지닌 생각의 규모만큼 크다.**

나포레온 힐(1883~1970) : 미국의 자기개발 컨설턴트

\* 고바야시 가오루의 『맛있는 경영학』 (청림출판, 2007) 중에서 발췌, 요약